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 (Fifty Fathoms Bathyscaphe Complete Calendar Moonphase)

바티스카프(Bathyscaphe)는 1956년 소개된 이래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 컬렉션의 주요 모델로 자리잡아왔다. 불랑팡이 이라인의 스포티한 유산과 미학적인 특징은 고수하면서 컴플리트 캘린더와 문페이스 컴플리케이션으로 바티스카프 라인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Fifty Fathoms Bathyscaphe Complete Calendar Moonphase*)에서는 불랑팡의 두 가지 특징이 조우하고 있다. 바로 **피프티 패덤즈**의 스포티한 다이빙 DNA와 빌레레 컬렉션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매뉴팩처의 전통,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 디스플레이가 그것이다. 불랑팡의 클래식한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요일과 월은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날짜는 다이얼 안쪽에서 별도의 바늘을 통해 표시하고 있다. 또한 문페이스는 6시 방향 커다란 창에 자리하고 있다. 사용자의 오작동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기 위해 이 **바티스카프**의 캘린더 메커니즘은 특별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정으로 넘어가는 동안 캘린더를 조정하더라도 전통적인 캘린더 구조에서와는 달리 무브먼트가 망가질 염려가 없다.

이 새로운 **바티스카프**가 물속 혹은 육지 어디에서나 최상의 가독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캘린더 정보는 은은하게 디스플레이했다. 덕분에 전통적인 빈티지 다이버 워치 디테일을 따르고 있는 인덱스와 메인 바늘이 더욱 돋보인다. 인덱스와 메인 바늘은 반짝이는 소재로 코팅해 운석다이얼과 멋진 대비를 이룬다.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스(Fifty Fathoms Bathyscaphe Complete Calendar Moonphase)은 새틴 피니싱 처리한 43mm 사이즈 스틸 케이스로 선보인다. 리퀴드메탈(Liquidmetal®) 소재의 인덱스에 세라믹 인서트를 갖춘 단방향 회전 베젤을 탑재하고 있는데, 리퀴드메탈과 세라믹 모두 높은 견고성을 자랑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 시계는 세일 캔버스(sail-canvas), NATO 스트랩 혹은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유서 깊은 NATO 버전은 영국 국방성(British Ministry of Defense, MOD)이 밀리터리 워치를 위한 견고한 스트랩을 모색 중이던 1960년대 등장했다. 이 기원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를 반영한 이름에 담겨 있다.